

부동산개발자금(PF) 대출 전문은행
동양저축은행
 [02]2228-0180

光州日報

VIP 1182-1182-1182 www.dobk.com
부자결혼의 꿈은, 이루어진다!!!
 대표이사 최영환
 광주지사 062-228-3222

The Kwangju Ilbo



초종용 백양더부살이

세계적 희귀 식물 초종용·백양더부살이 신안 우이도에서 발견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인 신안군 우이도 모래해변에서 세계적 희귀식물인 초종용과 백양더부살이가 함께 발견돼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진라도 우리꽃기행탐"(회장 김미정·정하진)과 호남생태환경연구소(소장 이훈) 조사팀은 최근 이 곳에서 초종용 35개체와 백양더부살이 3개체를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초종용은 사철속에 기생하는 더부살이로 전국의 모래해안 주변에 아주 드물게 볼 수 있는 종이며 속에 기생하는 백양더부살이는 우리나라에서는 희귀한 식물이다.

초종용과 백양더부살이는 보랏빛 꽃을 피워 울리며 속 뿌리에 기생하는 식물로 별이 잘 들고 건조한 곳에서만 사는 까다로운 생애를 지니고 있다.

특히 백양더부살이는 1928년 일본인 학자 나카이 다케노신(中井猛之進)이 내장산에서 한 포기를 채집한 뒤 멸종한 것으로 간주됐으나 2003년과 지난 5월 정음시의 내장산 둔지에서 새로 1천여 개체가 발견되기도 했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독일 축구팬들이 월드컵 개막을 하루 앞둔 8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앞에서 열린 '팬파티'에서 독일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며 환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65억 축제' 월드컵 막 올랐다

오늘 독일서 화려한 팡파르...내달 10일까지 '그라운드 향연'



▶ 관련기사 2·7·20·22·23면

지구촌 65억 인구의 눈을 사로잡을 '지상 최대의 이벤트'가 '유럽 대륙의 심장' 독일 전역을 수놓는다.

18회째를 맞는 '2006 국제축구연맹(FIFA) 독일월드컵 축구대회 본선 파노라마'가 10일 오전 1시(이하 한

국시간) 뮌헨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개최국 독일과 코스타리카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대장정에 돌입한다.

다음 달 10일 새벽 3시 결승까지 한 달 간 펼쳐질 본선 64경기는 단 한 경기도 눈을 떼어내기 어려운 그라운드 향연이다.

주관 방송사 HBS는 전 세계 213개국 300여개 방송에 생생한 현장을 전

한다. 전 세계 방송 시간을 모두 더하면 무려 4만1천100시간이나 된다. 모든 중계 화면은 169 비율의 와이드 스크린 포맷과 HDTV 방식의 고선명·고화질로 지구촌 곳곳에 전달된다.

개막전이 열리는 뮌헨과 결승전 개최지 베를린을 비롯해 쾰른, 도르트문트, 쾰른, 함부르크, 뉘른베르크, 슈투트가르트, 카이저스라우테른, 프랑크푸르트, 라이프치히, 하노버 등 12개 개최 도시는 스타디움 주변 단장을 끝내고 일제히 손님을 맞고 있다.

방송을 통하지 않고 직접 눈으로 세기의 쇼를 지켜볼 행운을 거머쥐는 팬들은 320여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2002년 한일월드컵 때는 한국과 일본의 20개 개최 도시에서 270만5천197명이 경기를 지켜봤지만 이번에는 베

를린 올림픽과 슈타디온(7만4천200석), 뮌헨 알리안츠 아레나(6만6천석), 도르트문트 베스트팔렌 슈타디온(6만6천석) 등 대규모 경기장이 많아 4년 전보다 훨씬 늘어난 독일인 220만명, 외국인 100만명 정도가 '그라운드'의 역사를 목격하게 된다.

이번 월드컵은 지구촌의 축제를 동시에 한국민에게는 절실한 연원을 이어갈 '붉은 함성'의 현장이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아드보카트호는 지구를 두 바퀴 이상 도는 8개월여 항해를 거쳐 마지막 결전의 땅을 밟았다. 지난달 27일 가슴 벅찬 열정을 품고 인천공항을 떠난 자랑스러운 태극전사들은 전 국민의 기(氣)를 전달받아 전역을 가다듬은 채 카운트다운을 세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알-자르카위 사망

미군 공습으로...저항단체 알-카에다 지휘

故 김선일씨 살해 배후

요르단 출신으로 이라크 저항운동을 주도해 온 알-카에다 지도자 아부 무사브 알-자르카위와 그의 고위측근 7명이 7일 저녁(현지시간) 바쿠바에서 미군의 공습을 받고 숨졌다.

누리 알-말리키 이라크 총리는 8일 기자회견에서 "자르카위가 오늘 바그다드 북동부 50km의 바쿠바 소재 은신처에서 미군의 공습으로 최후를 마쳤다(terminated)"고 말했다고 이라크 국영 알-이라키아 TV가 전했다. <관련기사 4면>

말리키 총리는 이라크 보안군이 이 지역 주민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날 공습작전이 감행됐다고 덧붙였다.

자르카위 살해 경위와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지 케이지 이라크 주둔 미군 사령관은 2주 전부터 자르카위 은거 지역에서 검거 작전을 펼쳐왔다고 말하고 공습작전 직후 자르



지난 4월 25일 이슬람 무장단체의 웹사이트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알 카에다의 지도자인 알 자르카위의 모습. /연합뉴스

카위의 지문 대조 작업을 통해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알-자르카위는 미국의 9·11 테러 이후 오사마 빈 라덴을 대신해 알카에다를 지휘해왔으며, 2004년 미국인 니 버그, 한국인 고 김선일씨 납치 살해 배후자로 추정돼왔다. /연합뉴스

콜금리 0.25%P 전격 인상

금통위, 4개월만에 또 올려...연 4.25%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8일 콜금리를 연 4.25%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콜금리 인상은 지난 2월 이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로써 콜금리는 지난 2003년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관련기사 11면>

금통위는 아울러 유동성조절대출금리도 연 2.50%로 각각 0.25%포인트 인상했다. 금통위는 향후 경제전망에 대해 "그동안 경제성장의 하방위험 요인으로 작용했던 유가와 환율 여건이 현재 수준보다 크게 악화되지 않는다면 경기상승 기조는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물가는 근원인플레이션과 소비자물가가 모두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콜금리를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금통위는 그러나 하반기들어 물가 상승세가 확대될 수 있으며 부동산가격도 5·31 지방선거 이후 정부의 규제완화 기대감 등을 배경으로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금통위는 지난해 10월과 12월, 올해 2월 콜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인상한 이후 3개월간 4.00%를 유지해 왔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물가 36년 정보의 메카니즘
 SINCE 1970
국내 최고의 물가전문지
 綜合物價情報
 http://www.kpi.or.kr
 한국물가정보
 TEL: 1977-7900 FAX: 1983-2202

오남예술제 미술·작문 본선실기대회
15일(목) 개최
 눈송부들은 여칭대로(10일 풍암고) 진행
 ▶ 장소: 공호재빌라랜드 유치동빌라 ▶ 문의: 220-0541, 222-8111

포항대학 창학 50년 기념
남부대학교
 http://www.nsbu.ac.kr
 ▶ 입학문의: 054-271-4114 ▶ 11:00AM-02:00PM
 새도 찾아가는 대학
진남과학대학
 http://www.jnsc.ac.kr
 ▶ 입학문의: 058-5531 ▶ 11:00AM-02:00PM

1000인분의 바다와 10만명의 공원을 소유한
한국 아델리움이 탄생합니다!

061-282-0400

1000인분의 바다와 10만명의 공원을 소유한
한국 아델리움이 탄생합니다!

1000인분의 바다와 10만명의 공원을 소유한 한국 아델리움이 탄생합니다!

061-282-0400